

A Study on Religious Education in Families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ocusing on Adolescent Textbooks

Sunyoung Moon*

Sun Mo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religious education in families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FWPU), a new Christian relig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adolescent textbooks utilized in these households.

[Contents] The adolescent textbooks, compiled into two volumes, are structured under eight major themes and a total of 52 subtopics. Each subtopic is designed for parent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to read together at home, fostering interaction and dialogue. The major themes of Volume 1 are: (1) Heavenly Parent and True Parents, (2) Self, (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4) Dreams and Future. The major themes of Volume 2 are: (1) Love, (2) Family, (3) All things, and (4) Faith. These major themes are based on the worldview of FFWPU, encompassing the primary life purposes and values pursued by the faith community. The textbooks als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is new religion, including its experience of misunderstanding from mainstream Christianity in Korea and its significant compos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in the faith community. Accordingly, the textbooks also emphasize the aspect of religious education aimed at enhancing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nclusions] Religious education in families of FFWPU emphasizes helping adolescent children form a religious self-identity, establish religious values regarding sexuality, and focu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life aimed at developing a complete religious character.

[Keywords]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amily, Religious education, Adolescent

* **Corresponding author** Sunyoung Moon (Professor, Division of General Studies, Sun Moon University)

E-mail : tcmsy@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 연구: 청소년 교재를 중심으로

문선영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기독교계 신종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에서 활용되는 청소년 교재를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두 권으로 편찬된 청소년 교재는 8가지의 대주제 아래 총 52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주제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가 가정에서 해당 교재를 함께 읽으며,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수반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제1권의 대주제는 첫째,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둘째, 나, 셋째, 대인관계, 넷째, 꿈과 미래이다. 제2권의 대주제는 첫째, 사랑, 둘째, 가정, 셋째, 만물, 넷째, 신앙이다. 이러한 대주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신앙공동체가 지향하는 주요한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함의되어 있다. 해당 교재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국내 주류종교인 기독교로부터 물이해되는 현실과 다문화가정이 적지 않은 신앙공동체의 신종교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종교교육의 측면도 확인된다.

[결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은 청소년기 자녀가 첫째, 종교적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둘째, 종교적 성 가치관을 확립하며, 셋째, 종교적 인격을 완성해 가는 삶의 실천적 생활화를 중시하고 있다.

[주제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 종교교육, 청소년

I. 들어가는 말

가정은 인간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근간이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인간 삶의 기초적 행동 양식을 직접 경험하고 배워나가는 첫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가정이 지닌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은 사실상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가정은 유일신 종교에서도 종교교육¹⁾의 장으로서 중시되어왔다. 가정의 존재는 유일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적 신앙인의 삶을 계승해 나가도록 교육해 나왔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유대교가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가장 대표적이다(Min, 2005: 221-235).

유대교로부터 파생된 기독교 또한 가정을 종교교육의 장으로서 간과하지 않으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기독교 가정의 종교교육은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회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이 종교교육의 중심으로 강화되기 위해, 교회와 가정의 종교교육이 연계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이 제기되기도 한다(Choi, 2019: 219-223). 이처럼 유일신 신앙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가정에서 종교적 신앙인의 삶이 후속세대에 전승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기독교계 신종교인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²⁾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본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유대교, 기독교와 동일한 유일신 신앙을 이어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가정을 신앙공동체의 기반으로 종단명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은 어떠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가정에서 활용되는 교재는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의 실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교회학교의 종교교육에 비해, 가정의 종교교육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교재와 같은 교육 관련 문헌은 드물다. 2021년 9월 해당 신앙공동체의 가정에서 활용되도록 편찬된 청소년 교재로서, 제1권 『효정의 꿈 그리고 내일』, 제2권 『사랑으로 일구는 우리 가정』이 교육 관련 문헌으로 확인된다.³⁾ 이후 가정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공식적인 청소년 교재는 편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1) 종교교육 개념은 다층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종교교육 개념은 다양한 신앙공동체의 개별화된 종교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의 의미를 뜻한다.
- 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1954년 창시자 문선명에 의하여 창립되었으며, 세칭 통일교회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1997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으로 종단명이 변경되었다. 종단명 변경 이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창시자 부부를 종단의 공동 창시자로 이해하고 있다.
- 3) 필자는 다양한 기독교계 신종교의 종교교육 연구 과정에서, 일부 신앙공동체는 내부의 교육 관련 문헌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경우를 경험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가정에서 활용되도록 편찬된 해당 교재는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출판사(천원사) 쇼핑몰(truebooks.co.kr)과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공식 서점(청파서점)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해당 청소년 교재는 무엇보다 신종교로서 변화의 역동성이 뚜렷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 교재로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유일신 종교 가정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가정을 표방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주목하며 상술된 두 권의 청소년 교재를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내에서 다수의 주류종교가 아닌 소수의 기독교계 신종교 가정의 종교교육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의미가 있다.

II.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청소년 교재의 구성 내용

두 권으로 편찬된 청소년 교재는 8가지의 대주제 아래 총 52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교재 활용 방법이 해당 교재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구분된 52가지의 소주제는 1년 52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에서 매주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소주제의 내용은 일정하게 구조화된 전개 방식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각 소주제는 “함께 들어가며”, “참부모님께 들으며”, “서로 나누며”, “생각을 정리하며”의 순서로 전개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21a: 12-19).⁴⁾ 다시 말하면,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가 가정에서 해당 교재를 함께 읽으면서 상호 간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수반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함께”, “서로”라는 단어는 이러한 점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함께 들어가며”는 소주제의 도입부로서 해당 소주제와 연계된 물음이 대체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훈독(訓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해당 신앙공동체의 종교적 가르침을 읽고 뜻을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FFWPU, 2013a: 1198). “함께 들어가며” 이후 전개되는 “참부모님께 들으며”는 해당 교재에 “훈독” 교재라고 특별하게 표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소주제의 내용과 관련된 창시자의 교시를 중심으로 발췌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부모님께 들으며” 이후 전개되는 “서로 나누며”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시도되도록 소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물음이 제시되고 있다. “서로 나누며” 이후 전개되는 “생각을 정리하며”는 소주제에서 다룬 중심적 내용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마무리되는 종결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전개를 기본으로 하는 청소년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 내용을 각 권의 대주제와 소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공식 영문 표기인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은 이하 FFWPU로 축약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1. 제1권 『효정의 꿈 그리고 내일』

우선 제1권 교재명에 나타난 일반적이지 않은 효정(孝情)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자칫 인명(人名)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해당 용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공동체에서 보편화되어 사용되므로, 그 의미가 교재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파악된다.⁵⁾ 효정은 효의 심정(心情)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녀가 지닌 부모를 향한 사랑의 본성 곧 효심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2016년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공동 창시자인 한학자(韓鶴子)에 의하여 부각된 용어이다(Han, 2020: 30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인격적 유일신 신앙을 기반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고백한다(FFWPU, 2001: 41). 이에 효정이란 개념은 궁극적으로 신앙의 대상인 부모로서의 신을 향한, 자녀되는 인간의 종교적 삶의 태도와 인식을 담아낸 것으로 확장되어 해석된다(Han, 2020: 310). 즉 효정은 각 개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궁극적 원인자인 유일신을 지향하는 신의 자녀로서의 자기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효정의 의미가 담긴 제1권 교재는 4가지의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장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2장 “나”, 3장 “대인관계”, 4장 “꿈과 미래”가 이에 해당한다. 1장의 대주제인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에서 유일신과 메시아를 각각 뜻한다. 즉 “하늘부모님”은 유일신을 칭하며, “참부모님”은 메시아 곧 구세주의 위상을 일컫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2013년부터 유일신 호칭을 새롭게 변경함으로써 종단 초창기 기독교로부터 계승해 온 ‘하나님 아버지’ 호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남성적 부성과 여성적 모성이 회복된 ‘하늘부모님’이라고 유일신을 일컫고 있다(Moon, 2023: 195-218). 또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기독교와 달리 남성과 여성의 협력적인 공동사역을 통해 실현되는 참부모로서의 메시아관을 갖고 있다(FFWPU, 2001: 233-238). 이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창시자 부부는 유일신이 주도하는 타락한 인간의 중생(重生)을 통한 구원섭리에서 이와 관련된 구세주적 사명을 지닌 남성과 여성으로 고백되고 있다.

따라서 1장의 대주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의 중심이 되는 창조주 유일신과 종교적 구세주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교재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고 있다. 1장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은 5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소주제는 1. “하늘부모님은 누구이시고 어떻게 계시나요”, 2. “참된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3. “하늘부모님은 나와 무슨 관계인가요”, 4. “참부모님은 누구이신가요”, 5. “마음과 몸의 통일”로 구분된다.

1장의 각 소주제는 첫째, 신의 존재, 둘째, 종교의 역할, 셋째, 신과 인간의 관계, 넷째, 창시

5) 효정의 영문 표기(HyoJeong)는 주로 약칭인 “HJ”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수련원은 HJ천주천보수련원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효정은 해당 신앙공동체에서 보편화된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자 부부의 종교적 삶, 다섯째, 양심과 참사랑을 중심한 마음과 몸의 통일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 이러한 소주제는 청소년기 자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하늘부모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의 실존과 참사랑 그리고 희생과 봉사가 내포된 위하여 사는 삶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부모로서의 신과 자녀로서 창조된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 시조의 타락과 참부모로 불리는 종교적 구세주를 이해하게 한다. 특히 “마음과 몸의 통일”이란 마지막 소주제는 1장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대주제와 직접적으로 부합되는지 다소 모호해 보인다. 이 소주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신을 중심한 마음과 몸이 통일된 신앙인의 생활이 본질적으로 양심과 참사랑을 중심한 생활이라는 점을 청소년기 자녀에게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FFWPU, 2021a: 50-57).

2장 “나”는 본격적으로 교재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 자신에게 비중을 둔 대주제로서, 5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소주제는 1. “나의 가치”, 2. “자살을 생각하나요”, 3. “나는 하늘부모님의 형상”, 4.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요”, 5. “참된 인격자가 되는 길”로 구분된다.

2장의 각 소주제는 첫째, 자존감, 둘째, 자살 문제, 셋째, 외모, 넷째, 학교 폭력, 다섯째, 참된 인격의 완성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자기 폄하, 자살 충동,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그리고 학생으로서 직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의 현실을 소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소주제는 청소년기 자녀가 자신을 신의 자녀이며, 각자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종교적으로 죄가 되는 자살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위임을 청소년기 자녀에게 일깨우고,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가 인간의 외모는 개별화된 신의 형상이므로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자녀가 신의 자녀로서 신을 닮은 참된 인격의 완성을 간과하지 않고, 인격자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한다(FFWPU, 2021a: 103-108).

3장 “대인관계”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전제되며, 6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소주제는 1. “Hello, my friend!”, 2. “내 비록 한 줌의 재가 될지라도”, 3. “하늘부모님도 꿈쩍 못 할 인간의 가치”, 4. “화동의 중심은 나야, 나!”, 5. “아름다운 인생의 봄, 사춘기”, 6. “감사합니다. 선생님!”으로 구분된다. 네 번째 소주제 “화동의 중심은 나야, 나!”에서 화동(和動)이란 용어는 조화, 화합의 의미를 지닌다(FFWPU, 2021a: 135-142).

3장의 각 소주제는 첫째, 우정, 둘째, 불의에 대한 대응, 셋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넷째, 차별과 편견, 다섯째, 사춘기 감정변화, 여섯째, 선생님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 이러한 소주제는 청소년기 자녀가 소중한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불의한 상황을 마주할 때 이를 피하지 않고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또한 신을 닮은 인간의 소중한 신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동의 중심이 되어 인간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조화로운 상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춘기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를 지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자녀가 학교 선생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으로서 올바른 사제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한다(FFWPU, 2021a: 151-159).

마지막 4장 “꿈과 미래”는 제1권 교재에서 가장 많은 9가지 소주제를 통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해당 소주제는 1. “인생의 과녁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는 나”, 2.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나”, 3. “꿈의 성취를 방해하는 습관들”, 4. “하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내 삶의 세계”, 5. “천운을 부르는 정리정돈 습관들”, 6.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찾아서”, 7. “내가 꿈을 잡는다! 내가 꿈을 창조한다!”, 8. “꿈은 이루어진다”, 9. “세계를 한 품에 껴안은 사람이 되자”로 구분된다. 네 번째 소주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하늘”이란 개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하늘부모님이라고 호칭한 신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4장의 각 소주제는 첫째, 진로 선택, 둘째, 수면욕, 식욕, 성욕의 주관, 셋째, 벗어나야 할 나쁜 습관, 넷째, 시간 낭비, 다섯째, 정리정돈 생활, 여섯째, 공부의 목적, 일곱째, 자신의 꿈, 여덟째, 꿈의 실현, 아홉째,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 이러한 소주제는 청소년기 자녀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소명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재능을 계발하며, 몸의 기본적인 욕구를 주관할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에게 시간의 중요성과 계획적인 활용, 생활환경에서의 자기 주도적인 정리정돈 습관의 실천을 일깨운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표를 스스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신을 중심한 자신의 꿈을 갖고 이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세우며, 미래 세계를 이끌어 가는 글로벌 리더, 곧 진정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을 하게 한다. 특히 마지막 소주제는 청소년기 자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공동체가 지향하는 부모로서의 신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이상의 지상 실현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실현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FFWPU, 2021a: 233-241).

2. 제2권 『사랑으로 일구는 우리 가정』

제2권 교재명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종단명에 표방된 ‘가정’이 직접적으로 부각되며, 4가지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사랑”, 2장 “가정”, 3장 “만물”, 4장 “신앙”이 이에 해당한다. 1장 “사랑”은 남녀의 사랑을 전제하는 것이며, 8가지 소주제를 통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해당 소주제는 1. “떨어지는 꽃잎 하나에도 설레다”, 2. “나의 반쪽”, 3. “생식기의 주인과 관리인”, 4.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선물”, 5. “내 안의 보석, 절대 성”, 6. “넌 결혼

하니? 난 축복결혼한다!”), 7. “미래의 반쪽을 위한 정성들이기”, 8.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의 시작”으로 구분된다.

1장의 각 소주제는 첫째, 사춘기 이성애에 대한 관심, 둘째, 남녀의 차이, 셋째, 생식기의 가치, 넷째, 남녀의 순결, 다섯째, 절대 성의 의미, 여섯째, 축복결혼의 의미, 일곱째, 축복결혼의 준비, 여덟째, 축복결혼의 현실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 이러한 소주제는 청소년기 자녀가 사춘기 신체 변화와 이성애에 대한 관심을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남녀의 차이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며, 인간이 지닌 생식기를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청소년기 자녀에게 일깨운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가 ‘절대 성’이라는 독자적 용어에 담긴 혼전순결과 신앙공동체의 결혼을 뜻하는 축복결혼 이후 남녀 모두 자신의 배우자를 위한 정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즉 절대 성 개념은 축복결혼 이전과 이후 남녀 모두의 성적 순결과 정절을 의미하며, “절대적 사랑 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FFWPU, 2021b: 39). 더 나아가 청소년기 자녀가 신의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축복결혼의 종교적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게 한다(FFWPU, 2021b: 52-74). 마지막으로 축복결혼을 통한 부부의 현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상대를 위하여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청소년기 자녀에게 일깨운다.

2장 “가정”은 1장에서 다룬 남녀의 사랑과 축복결혼의 연속선상에서 전개되는 대주제이다. 2장은 1장 “사랑”과 동일하게 8가지 소주제를 통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즉 1장 “사랑”과 2장 “가정”이 제2권 교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장의 8가지 소주제는 1. “천화만사성(天和萬事成)”, 2. “우리 가족을 공부합니다”, 3.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효(孝)”, 4. “위해 주고 아껴 주는 형제자매”, 5. “평화의 씨앗을 손에 쥔 국제가정 이야기”, 6. “전 세계가 무대인 멋진 다문화가정”, 7. “3대가 함께하는 가정”, 8. “화목한 가정에 찾아오시는 하늘부모님”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소주제인 “천화만사성”은 해당 교재에서 그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가화만사성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가화’가 아닌 ‘천화’로서 소주제가 언급되는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하늘”로 표현되기도 하는 신을 근본으로 하는 가정의 화목이 함의되어 부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FFWPU, 2021b: 88-91).

2장의 각 소주제는 첫째,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 둘째, 가정의 불화, 셋째,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효, 넷째, 형제자매의 관계, 다섯째, 인종과 국경과 문화의 벽을 넘어선 다문화가정, 여섯째, 국내 다문화가정의 고충, 일곱째, 조부모에 대한 이해, 여덟째, 화목한 가정을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 이러한 소주제는 청소년기 자녀가 신의 뜻이 담긴 이상적 가정의 실현을 이상적 평화 세계의 기반으로 이해하며,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조부모와의 화목한 가족 관계를 위한 상호 이해와 실천 방안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축복

결혼은 신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인종, 국경, 문화의 벽을 넘어 국제결혼으로 추진됨으로써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된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청소년기 자녀에게 일깨우고 있다.⁶⁾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자녀가 다문화가정이 국내에 정착해 가는 어려움을 이해하며, 다문화가정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한다(FFWPU, 2021b: 112-126).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해당 교재에서 부각되는 것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신앙공동체에 다문화가정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장 “만물”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에서 인간과 구별되는 피조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며, 6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소주제는 1. “만물의 복을 주고 싶은 사람”, 2. “만물을 아껴서 사용하는 참주인”, 3. “만물을 사랑하는 참된 주인”, 4. “세계와 인류를 위해 일하는 부자”, 5. “함께 사는 우리”, 6. “정직한 만물의 주인”으로 구분된다.

3장의 각 소주제는 첫째,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만물의 축복, 둘째, 만물의 절약, 셋째, 자연 파괴, 넷째, 부자가 된다는 것, 다섯째, 빈부 격차, 여섯째, 공금횡령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 대주제인 만물은 신에 의하여 창조된 자연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인간의 경제 활동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소주제는 청소년기 자녀가 신의 참사랑으로 만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삶의 실천을 이해하고, 돈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참된 주인의식을 지닌 자연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게 한다. 또한 이기적 경제관을 넘어 국가와 세계와 인류를 위한 나눔의 실천이 전제됨을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이 말하는 이상세계의 경제적 공생주의, 정치적 공영주의, 윤리적 공의주의의 이상을 이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신앙공동체가 조성한 공금은 “식구”라고 표현된 신앙인들의 희생이 담긴 것이므로, 청소년기 자녀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횡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일깨운다(FFWPU, 2021b: 190-195).

마지막 4장 “신앙”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종교적 신앙을 뜻하며, 5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소주제는 1.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나요?”, 2.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요?”, 3. “천국과 지옥”, 4. “지옥해방”, 5. “당당하게! 자신 있게!”로 구분된다.

4장의 각 소주제는 첫째, 신앙생활의 의미, 둘째, 지상에서의 삶과 죽음의 의미, 셋째, 사후세계, 넷째,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간, 다섯째, 이단 시비에 놓인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룬다. 이러한 소주제는 청소년기 자녀가 신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신앙생활의 이유를 이해하고, 사후세계 곧 영계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지상에서의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천국과 지옥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으며, 그 마음이 실체화하여

6)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가정이 모두 국제결혼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아니며, 국제결혼 형태를 지닌 축복결혼은 해당 교재에서 “교차축복결혼”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FFWPU, 2021b: 115-116). 이러한 표현은 신앙공동체의 축복결혼이 인종, 문화, 국경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의미가 부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차축복결혼은 Cross-Cultural Marriage Blessing으로 번역되고 있다(FFWPU, 2014a: 18).

영계에서 살아가므로 지상에서 참사랑과 일치된 생활의 가치를 청소년기 자녀에게 일깨운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가 인간의 고통이 경험되는 지옥은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부모로서의 신이 고통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려는 지옥 해방의 종교적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자녀가 유대교의 기독교 예수에 대한 몰이해를 통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종단 초창기부터 기독교로부터 종교적 핍박을 받으며 이단 시비에 놓여 몰이해되어 온 상황을 인식하게 한다(FFWPU, 2021b: 233-241).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신앙 공동체는 기독교 청소년 종교교육에서도 경계해야 하는 종교로 취급되어왔다(Oh, 1984: 95-97). 마지막 소주제인 “당당하게! 자신 있게!”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기독교계 신종교로서 기성 종교인 기독교와 대비되는 상황에 놓인 신앙공동체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Ⅲ. 청소년 교재를 통해 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교재의 구성 내용은 전반적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3대 축복’이라고 개념화하며, 이를 인간이 완성해야 할 삶의 목적으로 제시한다(FFWPU, 2021a: 4).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강조되는 신앙과 명확히 구별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파악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3대 축복은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8절⁷⁾을 근거로 하여 부모로서의 신이 자녀인 인간에게 준 3가지 축복을 뜻하며, 인간이 지상에서 실현해야 할 신앙인의 삶의 주요한 가치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3대 축복은 첫째, 개인이 몸과 마음의 통일을 이룬 창조 본연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 둘째, 남성과 여성이 참사랑의 근원이 되는 신을 중심한 부부가 되어 자녀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완성하는 것, 셋째, 인간과 만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며 신을 닮은 인간의 주관성을 완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FFWPU, 2001: 44-49). 이와 같은 3대 축복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에서 신과 인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인간과 만물의 관계적인 삶을 인식하게 하며, 가정의 존재론적 의미를 이상세계의 기본 단위로 여기게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3대 축복을 실현해야 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할 신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함으로써, 이상적 가정을 토대로 하는 이상 세계는 지상에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본다(FFWPU, 2001: 113). 따라서 타락하지 않은 창조 본연의 남성과 여성을 중심한 이상적 가정의 회복을 통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신의 섭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전개되며, 지상에 먼저 신을 중심한 이상세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7) 표준새번역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세계관을 갖고 있다(FFWPU, 2001: 114-116). 즉 종교적 이상세계는 신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이 3대 축복을 이루는 그 책임을 각자 수행함으로써, 지상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 세계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상세계 실현을 위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3대 축복을 종교교육론의 신앙적 근거로 이해한다(Unification Thought Institute, 1994: 345). 제1권의 대주제인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나”, “대인관계”, “꿈과 미래”, 제2권의 대주제인 “사랑”, “가정”, “만물”, “신앙”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관이 반영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3대 축복의 실현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FFWPU, 2021a: 5). 해당 교재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가 가정에서 함께 신앙공동체의 주요한 삶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며, 교재의 주 대상인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고려되어 진로 문제, 친구 관계 문제 등 청소년의 삶의 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종교적 자아정체성 형성

청소년에 해당되는 나이는 국가, 관련 법,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Rho, 2022: 14-19). 따라서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에 관한 이해는 다양할 수 있으나, 해당 청소년 교재의 주 대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연령대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시기로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 및 변화해 나가는 과도기적 인간의 발달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이 부모와 구분된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통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탐색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제2의 탄생기라고도 불린다. 이 시기는 인간의 추상적이며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자아에 대한 의식이 발달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제1의 신체적 탄생과 구별하여 제2의 정신적 탄생을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해되기도 한다(Lee, Kim, & Kim, 2018: 27). 즉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은 자아존중감, 곧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Rice & Dolgin, Jeong, Shin, & Lee trans., 2009: 136).

가정은 청소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이기도 하다(Lee, Kim, & Kim, 2018: 326). 해당 청소년 교재는 청소년기 자녀가 기독교로부터 물이해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에서 부모와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하늘부모님”으로 칭하는 신의 실존을 이해하게 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기 자녀가 신의 자녀로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일깨우고 있다. 제1권 2장 “나”는 청소년기 자녀가 유일무이한 존재로 태어난

자아의 존엄성을 “개성진리체”(FFWPU, 2021a: 65, 138, 210)라는 독자적인 용어를 통해 인식하며 자아존중감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3장 “대인관계”는 청소년기 자녀가 “화동의 중심”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한다(FFWPU, 2021a: 135-142). 또한 제1권 교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장 “꿈과 미래”는 청소년기 고민 가운데 하나인 진로 문제와 연관되며, 해당 내용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은 청소년기 자녀가 신과 인간의 관계 이해를 통해 종교적 자아, 곧 신의 자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다.

2. 종교적 성 가치관 확립

무엇보다 청소년기 자녀는 신체의 성적 성숙을 직접 경험하면서 스스로 성적 존재임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동적 성향이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Lee, Kim, & Kim, 2018: 330). 따라서 성적 욕구와 충동에 대한 조절과 제어를 가능케 하는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에게 필요하다(Kwak & Hong, 1991: 1172-1178).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청소년은 온라인상에서 성과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와 자극적인 음란물,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해 환경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형성된 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자칫 청소년의 모방 행위 및 성범죄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성범죄와 관련된 청소년의 일탈은 그 수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청소년기 자녀의 성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은 간과될 수 없으며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성교육은 국내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성교육 기관의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성충동과 성적인 행동을 자극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호기심과 행동을 부추기고 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청소년의 성관계 등 성행위 결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Kidok Ilbo, 2023.12.5.). 한편 부모를 통해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Kidok Ilbo, 2023.12.5.).

해당 청소년 교재를 통해 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은 종교적 성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전통적인 기독교와 달리, 뱀의 유혹에 기인한 인간 시조의 선악과와 관련된 타락 행위를 새롭게 해석한다. 즉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과실(果實)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를 인간의 성과 관련지어 인간 시조의 타락 행위를 음란, 곧 불륜한 성적 관계로 이해한다(FFWPU, 2010: 78-83). 더 나아가 인간 시조의 타락은 성인이 되기

이전,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FFWPU, 2013b: 230). 제2권 교재의 대주제인 “사랑”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성교육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불가피한 주제이다. 그러나 해당 주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신앙에서 인간 시조의 타락 행위와 연계되기 때문에, 종교교육에서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FFWPU, 2021b: 47, 56).

기독교 또한 청소년 순결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Kim, 2006: 145). 그러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 시조의 타락 행위를 불륜한 성적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특별히 독자적 용어인 ‘절대 성’이란 개념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가 성과 사랑을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가정과 연계해서 이해하도록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은 청소년기 자녀가 성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키우도록 성욕의 주관을 중시하며(FFWPU, 2021a: 178), 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와 상의하도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FFWPU, 2021b: 49).

3. 종교적 인격을 완성하는 삶의 실천적 생활화

종교적 삶은 불가피한 삶의 실천을 수반한다. 즉 종교적 삶과 종교적 삶이 분리될 수 없으며, 이는 종교적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는 개인의 노력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양한 종교의 가르침은 인격의 수양을 중시하고, 관계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종교교육에 있어서, 종교적 삶은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 비중을 둔 교육이라면, 종교적 삶은 그 가르침에 대한 생활 속 실천에 비중을 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종교적 삶에 기반한 종교적 삶을 최종적으로 추구한다.

해당 청소년 교재는 종교적 삶에 기반한 종교적 삶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종교적 삶을 기반으로 내면화, 의식화된 가르침의 실천에 비중을 둔 교육 내용이 부각되고 있다. 즉 실천적 생활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가 가정에서 함께하도록 구성된 각 소주제의 “서로 나누며”는 물음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도록 전개되고 있다. 해당 물음은 청소년기 자녀가 종교적 삶의 실천을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이끌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FFWPU, 2021a: 140). “서로 나누며”에 제시된 물음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위하여 사는 참된 종교의 길을 실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FFWPU, 2021a: 29).

나의 마음과 몸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FFWPU, 2021a: 55).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인격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FFWPU, 2021a:

106).

본연의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다짐한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FFWPU, 2021a: 178).

상대를 위해 주고 맞춰주는 연습을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FFWPU, 2021b: 73).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계획을 이야기해 봅시다(FFWPU, 2021b: 169).

이와 같은 물음은 종교적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종교적 삶이 강조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은 신앙인으로서 종교적 인격을 완성하는 삶의 실천적 생활화를 중시한다고 파악된다.

IV. 나오는 말

본 논문은 유일신 신앙을 지닌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가정에 주목하며, 상술된 두 권의 청소년 교재를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1권 『효정의 꿈 그리고 내일』은 청소년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신의 자녀로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 계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교재명에서 부각된 효정은 신의 자녀라는 종교적 자아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자녀로서 창조된 인간이 부모가 되는 신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신앙인의 삶의 지향을 함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권 『사랑으로 일구는 우리 가정』은 청소년기 자녀가 종교적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신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만물에 대한 신을 닮은 인간의 주관성을 이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해당 교재는 청소년기 자녀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고민하게 한다. 종교적 신앙은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적 삶을 추구하며 이를 결단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교재는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이 국내 주류 종교인 기독교로부터 물이해되는 현실과 다문화가정이 적지 않은 신앙공동체의 신종교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은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기 자녀가 긍정적인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종교교육적 측면을 지닌다. 종교교육은 궁극적으로 종교적 삶을 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은 종교적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종교적 인격을 완성하는 삶의 실천적 생활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이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교재만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형태의 종교교육적 시도가 개별화된 가정에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소년 교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공식적으로 편찬한 것이므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의 종교교육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관련 문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해당 청소년 교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개별화된 가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교재를 활용한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해당 교재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파악된다.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 청소년기 자녀가 기독교로부터 물이해되는 부모의 종교적 결혼과 신앙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References

- Chang, I. S. (2005). The Content Analysis of Curriculum Textbooks for Inquiring Research Domains and their Development in Kore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3(2), 17-37.
- Choi, J. M. (2019). Tasks and Future of Christian Family Educati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1(3), 205-226.
- Kim, H. J. (2007). The Familism of Unification Church.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17, 201-229.
- Kim, K. B. (2020).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Juvenile Delinquency and Public Practices of the Church. *The Gospel and Praxis*, 55, 9-52.
- Kim, S. J. (2018). A Study on Youth Sermon Based on the Adolescent Development Theories. *Mission and Theology*, 45, 43-78.
- Kwak, Y. S. & Hong, K. E. (1991). Sexual Problems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34(11), 1172-1178.
- Min, D. H. (2005). Torah and Jewish Home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1, 221-238.
- Moon, S. A. (2016). True Parent's Educational Principle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177-193.

- Moon, S. Y. (2023). A Study on the Title of God in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49, 195-218.
- Park, A. C. (2003). Validity of Korean Versions of Ego-Ident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3), 373-392.
- Park, S. H. (2011). *An Analysis on the Curriculum for Unificationist Children and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un Moon University.
- Park, S. J. (2009). New Paradigm of Christian Educ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Crisis of Church Education in Korea: Connecting Church, Family, and School.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0, 53-83.
- Rice, F. Philip & Dolgin, K. Gale.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옮김 (2009). 청소년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Sigelman, Carol K. & Rider, Elizabeth A. *Human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박인숙 외 옮김 (2016). 인간성장발달. 서울: 포널스출판사.
- 김성애 (2006). 기독교 청소년 교육. 천안: 하교. (Translated in English) Kim S. A. (2006). *Christian Youth Education*. Cheonan: Hagyo.
- 노병일 (2022). 청소년문제와 보호. 파주: 양성원. (Translated in English) Rho, B. I. (2022). *Youth Problems and Protection*. Paju: Yangseongwon.
- 박청아 (2004). 정체감 연구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Park, C. A. (2004). *Prospects and Tasks of Identity Studies*. Seoul: Hakjisa.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2001).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1). *Divine Principle*. Seoul: Seonghwa Publications.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2013a). 천성경. 서울: 성화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14a). *Cheon Seong Gyeong*. Seoul: Seonghwa Publications.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2013b). 평화경. 서울: 성화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14b). *Pyeong Hwa Gyeong*. Seoul: Seonghwa Publications.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세계본부 (2021a). 효정의 꿈 그리고 내일. 서울: 천원사. (Translated in English)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21a). *The Dream and Tomorrow of HyoJeong*. Seoul: Cheonwonsa.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세계본부 (2021b). 사랑으로 일구는 우리 가정. 서울: 천원사. (Translated in English)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21b). *Our Family cultivated with Love*. Seoul: Cheonwonsa.
- 오인택 (1984). 기독교 교육. 서울: 종로서적. (Translated in English) Oh, I. T. (1984). *Christian Education*. Seoul: Jongnobooks.

- 이복희, 김종표, 김윤아 (2018). 청소년교육론.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Lee, B. H., Kim, J. P., & Kim Y. A. (2018). *Youth Education*. Seoul: Hakjisa.
- 이희영, 성형림, 김은경, 박서원 (2017). 인간심리의 이해. 서울: 시그마플러스. (Translated in English) Lee, H. Y., Seong, H. L., Kim, E. K., & Park, S. W. (2017). *Understanding Human Psychology*. Seoul: Sigmapress.
- 정옥분 (2015).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Jeong, O. B. (2015). *Theories of Life-Span Development*. Seoul: Hakjisa.
- 통일사상연구원 (1994).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Unification Thought Institute (1994). *Explaining Unification Thought*. Seoul: Seonghwa Publications.
- 한학자 (2020).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파주: 김영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H. J. (2020). *Mother of Peace*. Paju: Gimyoungsa.